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맑음

제목 : 사이판 pic

사이판 pic에서 수영도 하고 윈드시핑도 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니까 용기가 났다. 그래서 한 번 해 보았는데 아주 재미있었다. 워터슬라이드도 깊은 곳으로도 가보았다. pic 안에는 골프, 탁구, 양궁, 당구등 아주 많이 있었다. 그중에서 탁구가 제일 재미있었다. 임가, 아버지가 어떤 판이나 다이졌다. 양구는 하기 어려운 제일 재미없었다. 그곳에 만약에 축구를 하는 곳이 있으면 참더 재미있을 것 같다. 차를 타고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배나 가항섬에 갔다. 재미있는 스노클링도 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 보았다. 상어랑 비슷했다. 그래서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 도망을 가버렸다. pic로 돌아와 조금 놀다가 호텔로 다시 들어가 씻고 아버지의 아이패드도 Toy story를 보다가 잤다. 참 재미있는 하루였다.  
사이판 pic 장!! 대박 멋져!